

글 _ 강경희(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젊은 기업인의 재기를 바라며



터 보테크의 분식회계는 벤처업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그 추이를 지켜 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했다. 이는 2000년 코스닥 거품의 파장으로 벤처업계가 어려움을 겪던 시절, 벤처 1세대를 대표하는 장흥순 회장이 누구보다 앞장서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수립 등 벤처 활성화를 위하여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주역이었다.

장흥순 회장은 국내 처음으로 1998년 세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한 아시아 차세대지도자 100인으로 선정되기도 하였고, 2000년도부터 벤처기업협회 회장직을 역임하며 벤처업계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다.

벤처기업이 어려움을 겪던 2000년, 장흥순 회장은 모든 것을 가진 후에 나누는 것은 오히려 가진 자의 오만으로 인하여 나눔에 인식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막 시작하는 벤처기업들을 돌려줬다. 나눔이란 적게 가졌을 때부터 훈련되어지고 일상화된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많은 벤처기업들이 직장나눔캠페인(Workplace Campaign)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 캠페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캠페인 현장에 직접 참여하며 아직은 낯선 우리 사회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장회장의 진실 어린 노력으로 적게는 이제 겨우 직원 4명으로 시작한 벤처기업부터 이미 시장에 안정적인 기반이 뿌리내린 수백명의 직원을 거느린 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나눔에 참여하는 행렬은 이어졌다.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었던 그 나눔의 행렬이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참여했던 기억이 여전히 진하게 남아있는 필자는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터보테크 관련 기사들을 마주하는 것이 남다르지 않을 수 없다.

벤처기업의 노고 잊혀서는 안 돼
M경제신문사의 기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터보테크의 분식회계를

비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벤처기업인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현실은 안타깝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난은 달게 받아야 하지만 벤처기업인의 공로와 역할이 잊혀서는 안 된다. 공장 야전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며 성공을 꿈꿨던 벤처기업인들의 열정과 창의를 정보기술(IT) 강국을 일궈낸 밑거름이었다. 벤처기업은 필부필부(匹夫匹婦)의 자식들이 맨주먹으로 인생역전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재분배 수단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중략) 물론 이 같은 재평가에 앞서 벤처기업들의 자성도 필요하다……(중략) 정부 또한 제도 틀을 정비함으로써 기업들이 이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동감하는 바이다. 벤처라는 단어가 낯설던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벤처기업들의 노고는 높이 평가되어야 하고, 적절한 제도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생물학적인 젊음을 넘어선 패기와 도전의 젊은 피를 상징하는 벤처기업의 항로에 거침없이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젊기에 용감하게 시도하는 시행착오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매우 철저하게 지켜보며 격려해야 할 것이다.

터보테크의 장흥순 회장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대표직과 개인 지분 등 모든 것을 내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9월 29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구태의연한 과거 기업인들의 구차한 변명과는 분명 다른 메시지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법적 책임을 포함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나 개인의 잘못일 뿐 전체 벤처기업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다른 벤처기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분식회계의 과오에 대하여 비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그리고 해야만 할 일이 남아있는 백의종군을 약속하는 젊은 기업인에게 마음의 부채를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갖기 전에 나누기를 먼저 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투사에게 재기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